

호스피스 = 스트레스?

김옥겸(본회 이사)

「호스피스=스트레스」라는 등식은 성립이 될까?

호스피스 일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라는 말을 이따금 듣는다. 이럴 때는 이러한 등식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늘 밝고 한결같은 모습을 보이시는 호스피스 협회 의 여러 지인(知人)들을 보면 아닌 것도 같고...

봉사자 교육을 분명히 100여명이 받았건만 몇 년 지난 뒤에 10명 정도밖에 안 남는 것을 보면 맞는 것도 같고, 1주에 한번씩 환자를 만나러 오지 않으면 상사병에 걸린 듯 안절부절 하게 된다는 봉사자들의 말씀을 들으면 아닌 것도 같고...

호스피스 교육 내용에 꼭 '스트레스 관리'가 포함되는 것을 보면 맞는 것도 같고, 10년이 넘 어도 여전히 호스피스 간호사일을 좋아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보면 아닌 것도 같고...

우리 환자들을 만나면 '스트레스 때문에' 암에 걸리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을 종종 듣게 된다.

의학적으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면역력이 떨어져 질병에 걸리게 된다고 하던데, 과연 그럴까?

우리 호스피스에 5년째 빠지지 않고 봉사를 하고 계시는 G 권사님은 어떤 일인지 환자를 만나러 가실 때마다 변을 치우고 오시는 때가 너무 많아 별명이 'X 권사님'이다. G 권사님이

방문하실 때면 임종을 앞둔 환자가 마지막으로 뺏속에 들었던 모든 변을 배설하거나, 변비로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나오던 변이 하필 권사님 계실 때에 나오곤 하기 때문이다. 권사님은 "뺏 싸 몇 번째인지 몰라. 왜 나만 보면 변들을 보시지?" 하며 투정을 하시지만 얼굴은 웃고 계신다. 남들이 꺼리는 더러운 것을 만져야 한다는 것은 분명 스트레스이리라.

나이 지긋하신 K 전도사님은 2년째 봉사를 하고 계신다. 그런데 지금까지 만난 환자들 중 대부분이 잠만 계속 주무시거나 무의식상태이어서 아기자기 대화도 나누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싶어도 그것이 잘 안 된다고 안타까워 하신다. 본인이 계획하고 생각해온 일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빠지는 것도 또한 스트레스이리라.

P 집사님과 M 권사님은 각각 호스피스 봉사를 마치고 귀가 길에, 또는 봉사를 하러 오시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셨다. 병원에 입원해 통증으로 고생하면서도 "환자들의 어려움을 좀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하셨다.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을 당하면 스트레스가 더 심하지 않을까?

돌보던 환자가 돌아가실 때마다 너무나도 애절하게 슬퍼하는 젊은 S 집사님. 그분은 "밥먹을 때에도, 길을 걷다가도, 잠을 자다가도 환자를 생각해요"라며 눈물을 펄펄 흘렸다. 이별과 슬픔을 자주 경험한다는 것 또한 너무나 큰 스트레스이리라.

호스피스와 생명윤리

연·재·순·서

1. 생명윤리의 4대원칙
 - 1) 자율성 존중의 원칙
 - 2) 악행 금지의 원칙
 - 3) 선행의 원칙
 - 4) 정의의 원칙
2. 환자 권리와 호스피스
3. 안락사와 호스피스

하지만 G 권사님도, K 전도사님도, P 집사님, M 권사님, S 집사님도 모두 환자를 부탁하면 지체하지 않고 기꺼이 달려오신다. 그뿐 아니라 바자회, 음악회 등 온갖 행사와 허드렛일까지 마다 않고 기쁜 얼굴로 봉사하시는 것을 보면 스트레스를 넘어서는 그 무엇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 「그 무엇」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친절을' 베풀 때 느껴지는 충성된 종의 보람일 수도 있고, '나만 건강해서 미안한' 빛진 자의 심정일 수도 있고, '나도 어려움을 당하면 누군가 나를 도와줄 꺼야'라고 하는 저축의 마음일 수도 있다. 그러나, 결국은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일 것이다. 그러므로 「호스피스=스트레스」라는 등식보다는 「호스피스=사랑」이라는 등식이 성립되지 않을까?

다시 말하면, 「호스피스=사랑≠스트레스」라고 쓸 수 있을 것이다.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처럼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말하는 스트레스도 우리 호스피스 일을 하는 모든 이들에게는 위협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그런데...

책에서도 배운 적이 없는 스트레스가 가끔 내게 찾아올 때가 있다.

「호스피스 일을 하는 천사 같은 분」이라고 누군가가 나를 지칭할 때 나는 기겁을 하면서 스트레스가 쌓인다.

“전 아네요! 어제도 공부 안 한다고 아들에게 소리를 질러댔고, 남편에게 집안일 안 도와준다고 눈 흘겼으며, 꾸중하는 어른 뒤에서 입술을 삐죽인걸요...

호스피스 일 한다고 모두 천사인가요? 저는 아니라고요!!!” ♥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제기되는 이런 상충뿐 아니라 모든 행위가 지닌 양면성으로 인해 한 개인 내에서도 이런 상충의 물음이 일어난다. 의료행위 역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지닌다. 한 예로써, 감기환자에게 주사를 놓는 것은 감기 바이러스를 죽이는 데 기여하여 콧물이나 기침을 멈추게 해주지만, 다른 한편으로 인체에 부작용을 일으킨다. 이럴 경우 우리는 그 부작용을 기꺼이 감수한다. 엄밀히 말해, 이 경우 의사는 환자에게 악행을 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면 그 정당근거가 무엇인가? 이런 물음이 소위 이중결과의 원리와 관련된 물음이다. 이중결과의 원리를 옹호하는 자들은 의사가 감기를 낫게 하려는 의도에서 주사를 놓았지 그 부작용을 의도해서 주사를 놓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의사의 행위는 정당화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어떤 학자들은 이중결과의 원리를 거부하고, 선택적인 치료와 의무적인 치료의 구분을 통해 악행금지의 기준을 세우고자 시도하고 있다. 즉, 의사에게는 금지된 진료와 해야만 하는 진료가 있는데, 이를 어기는 것은 악행금지의 원칙에서 벗어나게 된다. 하지만 선택적인 진료의 경우